

노인층 인구가 많아진 탓이지만, 근래 들어 노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에 따른 신체적 자연 노화현상, 거기에 더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겹쳐지면, 그 치료가 결코 쉽지 않아서다. 해서 요즘 중풍(뇌졸중, 뇌경색)이나 치매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불구상태에 이르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알다시피 지금은 핵가족 시대. 외병(臥病)상태의 어르신들을 가족이 돌보아 드리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이럴 경우 흔히 가족들은 노인 환자를 노인 병원에 맡겨 버리고, 가끔씩 문병을 오곤 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정 처방을 받고, 집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요양 개념의 병원이 늘어나고, 병원 문턱도 낮아져 입원여건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필자로서는 그들 가족과 상담하는 경우가 잦다.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 여부,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 궁금해 한다. 간단한 상담 후 가족들은 환자와 잠깐 면회도 갖는다. 그 후 대부분의 가족들은 간헐적으로 면회를 올 뿐, 생애에 비해서인지 자주 면회를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상당수의 노인 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표현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클로버 병원장

치매노인은 몸으로 듣는다

력이 부족하고, 생각도 더디고, 모든 게 둔하다.

청력 손상이 심한 환자는 거의 병어리 신세다. 자발적 보행은 물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 가족들이 와서도 그리 오래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나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방편이 아주 뜬 노인 환자들을 보노라면 병원이 또 다른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족들로부터의 '자연스런 소외'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내 임상 경험으로는 아무리 심한 치매

노인일지라도, 환자를 '무시' 하는 태도는 무지에서 오는 것 같다.

어느 치매환자가 행동과 정서가 아주 소란스러워, 입원 병실로 잠시 옮겨졌다. 간병인도 잠시 바뀌었다. 한데 '환경'이 낯설어서인지, 그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었다.

약물로도 쉽게 안정을 시킬 수가 없었다. 다시 원래 병실로 돌아와 타 환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본래 간병인의 손에 다시 맡겨지게 했다.

힘은 더 들었지만, 다독여 주고 받아주는 행동을 보여 주자 얼마안지나 안정을 되찾았다.

인식 기능이 거의 다 퇴화되고, 어떤데 같은 심정으로 자아 통제가 안 되던 노인이 간병인의 친숙한 목소리와 손길이 다가오자 부지불식간에 그걸 느꼈기에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다.

아마 옆에 믿을 만한 친근한 가족이 있었더라면,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무언(無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또 하나, 치매환자가 비록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느낌'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식기능이 아무리 황폐해지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 노인 환자일 경우라도, 감각과 영혼은 살아 있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 봐야겠다는 거다. 생생하게 살아계실 적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답답하게 지켜드리는 태도, 어디까지나 품어 있는 인격체로서 대해주고, 임종을 맞을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말보다 따뜻한 관심과 손길, 포옹도 해주며 손목도 살며시 잡아준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족 상황도 간단히 말로 전해준다. 그러면 치매의 그 어리석은 몸으로 다 알아 듣는다. 그래서 필수룩 자주 방문을 드리는 게 좋다는 것이다. 당시는 여름 휴가동안 병상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 했는가?



남북정상회담 불교교류 힘 되길

8월 28일, 분단이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급하게 마련됐다. 현 정권의 입기가 불과 반년을 남기지 않았고, 바야흐로 대선정국으로 흘러가는 시점이다. 이와중에 급하게 마련된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국내 정치계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경제

계는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교계는 정상회담 발표 이후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쏟아냈다. 종단협의회는 물론 각 종단이 각각의 환영을 표했다. 7년 전의 정상회담이 세운 비석은 '6.15정신'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근본으로 하는 6.15 정신의 실현을 위해 남과 북은 7년간 무슨 일을 해 왔는가 돌아보면 그리 개운하지는 않다.

남쪽은 여전히 많은 것을 올려 보냈고 북쪽은 미시일을 남사하고 NLL을 부정하며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개성공단의 생산품이 한국의 백화점에서 팔리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띄었고 신계사 복원 불사가 회향을 앞두고 있다. 주고받는 것의 이익이 6.15정신의 실현은 아니다. 다만,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남과 북이 공평하게 기울여 왔는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불교계의 남북교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힘'이 되는 방향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보나 6자회담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보나 '열려'가 앞서는 정상회담이지만, 6.15정신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지리가 되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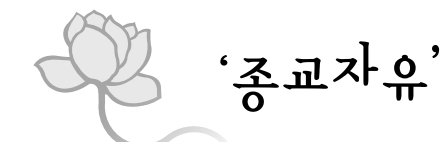
부산불교거사님회를 배우자

부산불교거사님회가 창립 35년이 됐고 800번째 법회를 앞두고 있다. 한 단체가 80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법회를 이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소위 '치마불교' '보살불교'가 드세던 시절 "거사불교를 활성화하여 부산 불교계를 번창하게 하자"는 뜻에 공감한 거사 20여명이 시작한 부산불교거사님회. 그 출발에서 오늘에 이르는 즐거운 정진은 특별한 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 125명의 스님과 23명의 재가 법사가 모임의 법회에 불초의 해명을 밝혀주었다고 한다. 이로써 부산불교거사님회는 배우고 정진하는 정혜정수의 실천으로 부산 지역은 물론 전국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당대의 선지식들을 모셔 법문을 듣고 생활 현장에서 가장 불자다운 행동으로 자신과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했으니 말이다.

'정법구원 생활불교 대중포교'의 지표는 부산불교거사님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수행단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를 먼저 읽고 문화를 이끌어 가는 불자가 많을 때 불교는 한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치열한 다종교사회에서 불자들이 구복과 기복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거사님회가 만들어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35년간 거사불교의 버팀목이 되어 온 그 저력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부산불교거사님회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큰 나무는 그늘도 넓고 열매도 많기 때문이다.



'종교자유' 칼럼

24. 이명박 장로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정치가, 지도자 자격있나

대선의 계절이다. 한나라당의 옹호상방도 구경거리이고, 소위 범여권의 지형변화도 관심거리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예비후보 중의 하나라는 이명박 장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행적에 관해서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얘기가 나오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공인의 '정교분리'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상기시켜 준 '서울시 불현' 당사자인데다, 그가 그나마 국민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명박씨는 2004년의 서울시 불현 사건 외에 지난해에도 부산의 한 공적인 개신교 행사에 보면 축하 동영상을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2006년 6월 4일 해운대 벅스코에서 진행된 'Again 1907 in Busan'이라는 개신교 청년부흥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산 지역의 사찰을 일일이 거론하며 'OO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몰상식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괴한 개신교 구경거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이가 바로 이명박씨였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쾌해했을 뿐만 아니

라 특히 불자들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올해 초 천태종 총무원장이 "경제 대통령 보다는 화합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배경도 그의 이와 같은 경솔한 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사를 구분 못하고 언행이 경박스럽다면 공인으로서 미덥지 못하다. 게다가 종교적 편견이 심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사과에 인색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명박씨는 2002년 7월 서울시장 재직시 월드컵 감독 히딩크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그 복잡한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과 사위를 히딩크와 따로 사진을 찍도록 한 해프닝으로 세인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몸에 익은 저의 체질과 공직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며 둘러대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의 처신은 그가 과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2005년도에 창계천 준공식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었다"고 자랑했고, 세계간 리고대회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하겠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관할구청을 통해 인원을 동원해 길거리 청소 등 도움을 주겠다"며 자못 공과 사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처럼 말했지만, 일반국민에게 역시 서울시민을 대표하



기보다 개신교인을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들린다. 때때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엇을 사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더 심각하다. 문제의식이 없다는 얘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오해를 받을 곳에서 머무러도 안되며, 오해를 받을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 실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본인의 의도가 있던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도자란 원래 그 권한에 걸맞게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2004년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 사건'만 해도 그렇다. 불자들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에게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Afterlife) by Heoncheonbeop. Includes text about 4 books, 12-point Palmistry, and a list of questions.

Advertisement for '하늘의 소리 소리 I·II·III권' (Heavenly Sound) by Heoncheonbeop. Includes book covers, a list of questions, and contact information.